訓民正音 解例의 音素-音聲學

宋 基 中 (전 서울대)

I. 서 설

1940년 『訓民正音』1책이 발견되어 수백년간 의문과 억측에 싸였던 한글의 기원이 밝혀졌다. 이 책의 解例(해례 '예를 들어 풀이함')에 기술된 설명에 의하여 정음 창제자들이 당시 국어의 음성과 음운체계를 소상히 관찰하여 새로 만드는 글자에 반영한 놀라운 사실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훈민정음 해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漢문화권 전래의 고전 『周易』(주역)에서 유래하는 宇宙萬物生成論(우주만물생성론)인 陰陽五行論(음양오행론)과 天地人(천지인) 三才論(삼재론)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聲音學(성음학)의[1] 관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演繹的推論(연역적추론 deductive inference)인 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은 19세기 말 서양의 實證主義(실증주의 positivism) 사상이 전래되어 풍미하게 된 후 역사적 사상으로만 언급될 뿐, 보편적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 음성의 특징을 五行 金木水火土나 三才 天地人과 결부시킨 해례의 설명들은 현대인이 이해하고 수긍하기 어렵다.

그와 반면에, 해례에 나타나는 '성음학적 사항'들은 19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되어 발달하여 온 현대언어학의 지식과 이론에 비추어 합당성이 인정됨으로써 경탄의 대상이 되었고, 훈민정음을 우리 민족의 최고 문화유산으로 세계에 자랑하는 근거가 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에 훈민정음 해례에 대한 어학적 연구는 대개 해례의 성음학적 사항들을 현대언어학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이론과 모형에 맞추어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성음학적 용어들은 현대언어학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初聲(초성)=어두자음, 終聲(종성)=어말자음, 中聲(중성)=모음, 牙音(아음)=연구개파열음, 全淸(전청)=평음/무기음, 次淸(차청)=유기음 등등과 같이 다수의 용어는 현대 언어학의 용어와 1 대 1로 대응시키는데 무리가 없다. '牙音-全淸'(연구개 폐쇄파열-평음)을 표시하는 글자 'ㄱ'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유기성이 추가되는 '차청' 음을 표시하는 글자는 '전청'자에 한 획을 추가한 'ㅋ'이라는 제자해의 설명은 현대의 연구

** 『(解例本) 訓民正音』의 현전(現前) 원본은 판심(版心)이 마모되어 장(張) 번호가 전혀 보이지 않으나, 편의상 전체 33장에 연번호가 보인다고 가정하고 다음 예와 같은 방법으로 인용문의 출처를 밝힌다.
예. <예의편 1전> : 『(解例本) 訓民正音』 例義篇, 제1장 앞면
<제자해 5후> : 『(解例本) 訓民正音』 「制字解」, 제5장 뒷면.

1) '성음학'은 "음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는 현대어의 '음성학'과 같지만, 훈민정음 해례에 나타나는 '성음학적 사항'에는 현대 음성학의 일반적인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포괄하고 '현대 음성학'과 구별하려 '성음학'이라 썼다.

자들은 물론 일반 교양인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 과학성에 감탄한 것이다.

필자는 기간된 몇 편의[2] 글에서 해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당시 국어의 모음 및 자음 체계에 대한 소견을 서술하였다. 본고에서는 ① 해례에 나타나는 성음학 용어들을 개념이 같거나 유사한 현대언어학의 용어와 대비하고, ② 해례에 제시된 음성 분류체계와 制字(제자) 이론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음성 간의 체계적(systematic)·계열적(paradigmatic) 관계를 20세기 음소론(phonemics)과 음성학에서 보편화된 이론으로 이해함으로써, 해례의 현대언어학적 가치를 재확인하려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언어학/국어학의 이론적 토대는 20세기 歐美(구미)언어학이고, 용어 또한 대다수가 서구어를 번역한 한자어이다. 지난 1세기 동안 다수 국어학자들이 채택함으로써 정착된 국어(한자어) 용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원 서구어 용어(주로 영어)도 병기하여 해례와 현대음성학의 개념상 동질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II. 해례의 음성학적 이해

1. 훈민정음 해례의 음성학적 가치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기술언어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언어 음성의 보편적(universal) 현상을 기술한 순수 이론적인 연구 논저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不在하였던 듯하다. 단일 언어의 음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도 극히 드물었다. 기원전 5-3세기의 인도 음성학자들은 산스크리트 음성의 調音的(조음적) 특징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음성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기원 5세기 이래 중국의 聲韻學者(성운학자)들은 중국어 음성의 어두자음(聲母 성모)의 종류를 파악하여 조음음성학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韻(韻母 운모)의 종류를 파악하였하였다. 15세기의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국어의 음성을 조음적 특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음성의 특징까지 설명하였다.[3]

그 외에는 고대 희랍과[4] 기타 지역의 문헌에 간혹 개별 글자가 표시하는 음성을 설명한 단편 기록이 남아 있거나, 모든 인도계(Indic) 문자들과 같이 문자체계(writing system)를 구성하는 낱자들이 표시하는 음성과 글자의 배열순서[5] 등에서 그 문자로 표기된 언어의 음성적 특징을 일부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훈민정음 해례는 고대인도 음성학자들의 저술과 중국 전래의 聲韻學書들과 더불어 20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희소한 음성 연구의 성과이다.

훈민정음 해례의 성격을 현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국어의 音素目錄(phoneme inventory)의 定立과 음소의 체계적 분류"**이다. 즉 당시 국어의 음소들을 파악하

2) 송기중(1991), 宋基中(1997), 송기중(2006), 송기중(2008), 송기중(2009), Song (2011) 등
3) 고대인도 음성학과 중국의 성운학의 음성 분류는 송기중(2008)과 宋基中(2009)에 요약 소개하였다.
4) 음성학의 역사는 Robins(1991)과 Lepschy(1994)를 참고하였다.
5) 데바나가리를 위시한 모든 인도계 문자체계에서 글자의 배열 순서(대개 k kh g ŋ ...)는 조음음성학적 특징에 의한 음성의 분류체계를 반영한다. Song(2011) 참고.

여 조음상의 특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한 것이다. 현대음성학에서 음소의 정립에 필수적 과정인 ① 分節音(분절음 segment)의 분석・파악, ② 자음・모음(consonant・vowel)으로 분류, ③ 辨別資質(변별자질 distinctive features)의 파악과 그에 의한 系列的(계열적 paradigmatic) 분류, ④ 位置的變異音(위치적변이음 positional variations)의 파악 등을 정음 창제자들이 수행하였음을 해례의 설명과 음성 분류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언어 혹은 방언의 음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현대 음성학의 훈련을 다년간 받은 사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님을 상기할 때, 570여년 전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음성 분석 – 음소 정립과 분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訓民正音'의 '正音'은 바로 세종대왕의 주도로 定立(정립)한 국어의 음소목록이며 동시에 그 음소들을 표시하는 문자를 의미한다. 아래 "5"절에서 설명한다.

2. 聲(성)과 音(음) --- 소리(sound)와 발음(pronunciation), 음성(phone, sound)과 음소/음운(phoneme)

현대국어에서 '소리'는 모든 종류의 소리 혹은 음향을 지칭하는 의미이다.[6] 현대 언어학/국어학에서 '인간 언어의 소리'를 '음성'(sound, phone)이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도 '음성'이라 하거나, '단음'(單音 simple sound)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어느 한 언어의 "언중(言衆)이 분별할 수 있는 음성/단음"을 그 언어의 '음소'(phoneme) 혹은 '음운'이라 하고, 음소들의 총합(總合)을 '음소목록'이라 한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 언어학(성운학)에는 언어의 기본 단위를 의미하는 '**聲**'과 '**音**'이 반드시, 그리고 빈번히 등장한다. 이 두 용어는 국어의 고유어로는 '소리' 하나로 (영어로는 'sound' 하나로) 대응되어 의미를 구분하기 어렵다. 중국의 성운학서와 훈민정음 해례에서 일견 혼용된 듯하지만, 양자(兩者)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었고 해례의 용례에서도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7]

1) 중국 문헌에서 聲과 音

禮記』(예기)・『詩經』(시경)・『說文解字』(설문해자) 등 고대 문헌에서부터 禮樂(예악)과 관련하여 聲과 音을 구별하는 설명이 보인다.[8] 한 두 예를 들면, 『禮記』의 한 주석에 "宮商角徵羽 雜比曰音 單出曰聲 (궁상각치우가 섞여서 조화를 이룬 것을 音이라 하고, 홀로 나오는 것을 聲이라 한다.)"; 『說文』에 "聲生於心, 有節於外, 爲之音. 宮商角徵羽, 聲也. 絲竹金石匏土革木, 音也.(聲이 마음에서 생겨나서 밖에서 마디[변화]가 있게 되면 音이 된다. 궁상각치우[음계 音階]는 聲이다. 실・대나무・쇠・박・흙・가죽・나무 [등 악기의 소리]는

6) 예. '사람 소리', '말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등.

7) 현대국어 漢字語의 용례에서도 의미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대략 '聲'은 '(일반적인) 소리', '音'은 체계가 있는 '(언어) 음성' 혹은 '(음악의) 음계'의 의미로 구별된다. 예. 발성(發聲), 성대(聲帶), 발음(發音), 모음(母音), 도-음(Do音) 등.

8) 姜信沆(1990) 10-14면에 중국의 여러 문헌 기사들을 인용・번역 소개하였다. 『中文大辭典』 7권 933면에 '聲; 9권 1717면에서 '音'에 대한 중국 역대 문헌의 定意가 여러 가지 수록되어 있다.

音이다."로 설명하였다. "도레미화솔라시도 음계는 聲이고, 음계를 조합한 음악은 音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옛날 중국의 학자들은 언어의 기본 성분도 聲과 音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달랐던 듯하다.

宋代 邵雍(소옹)은 "字音을 天聲(正聲, 聲母)과 地音(正音, 韻母)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였다"고[9] 하니, 聲과 音을 字音('음절')을 구성하는 두 성분인 聲과 韻으로 상정한 듯하다.

그러나 전래의 四聲五音의 분류체계에서 牙・舌・脣・齒・喉, 五**音**은 '조음기관'에 따라 구별되는 聲母(어두자음)의 분류 명칭이고, 全淸・次淸・全濁・不淸不濁, 四**聲**은, 같은 음성에 附加(부가)되는 특징들의 명칭이다. 즉, 현대언어학의 용어로, '조음위치(調音位置 place of articulation)에 의한 변별'은 音, '조음방식(manner of articulation)에 의한 변별자질'은 聲으로 구별한 것이다. 또한 성조(tone)의 구별인 平・上・去・入도 四聲이라 하였다.

2) 훈민정음 해례에서 聲과 音의 용례

정음 창제자들은 중국 성운학의 四聲五音/七音 분류체계를 그대로 도입하여 초성의 분석과 분류에 이용하였다. 그 때문에, '聲'과 '音'이 포함된 수입 분류 용어들, 예를 들어 '四聲'(平上去入), '四聲'(淸濁), '五音', '牙音', '舌音' 등은 중국 성운학의 용어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음 창제자들의 국어와 관련되는 설명에는 그들이 이해했던 聲과 音의 차별적 의미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解例에서 '**聲**'은 대개, 위에서 언급한, 현대 국어의 '소리'와 같이 모든 종류의 음향을 일컫는 의미로 나타나고, '**音**'은 대개 '언어의 음성', '발음', '음운/음소'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소리'의 대분류(大分類) 명칭은 'xx聲', '음운'의 명칭은 'xx音', 그 '音'의 특징을 설명하는, "그 소리는..."과 같은 표현에는 다시 '聲'이 사용되었다.

解例에서 '聲'과 '音'의 용례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例義篇(예의편)의 언해 「世宗御製訓民正音」의 해당 언해문을 // 표로 구분하여 병기한다.

<1> 訓民正音<서 1전> // 百빅셩ᄀᆞᄅᆞ치시논正졍ᄒᆞᆫ소리<언해 1전>

<2> 國之語音<서 1전> // 나랏말ᄊᆞ미<언해 1전>

<3> ㄱ.牙音.如君字初發聲<예의 1전> (ㄱ. 어금니소리. '군'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ㄱᄂᆞᆫ엄쏘리니君군ㄷ字ᄍᆞᆼ처섬펴아나ᄂᆞᆫ소리ᄀᆞᄐᆞ니 (傍點省略. 이하 同)<언해 3후>

<4> ㅅ.齒音.如戌字初發聲<예의 2후> (ㅅ. 이소리. '술'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ㅅᄂᆞᆫ니쏘리니戌슗字ᄍᆞᆼ처섬펴아나ᄂᆞᆫ소리ᄀᆞᄐᆞ니<언해 7후>

<5> ㆆ. 喉音. 如挹字初發聲<예의 2후> (ㆆ. 목구멍소리. '읍'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 // ㆆᄂᆞᆫ목소리니挹흡ᄍᆞᆼ처섬평아나ᄂᆞᆫ소리ᄀᆞᄐᆞ니라<언해 8전>

<6> ㅇ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예의 3후>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서 쓰면 입술가벼운 소리가 된다.) // ㅇᄅᆞᆯ입시울쏘리아래니ᅀᅥ쓰면입시울가ᄇᆡ야ᄫᆞᆫ소리ᄃᆞ외ᄂᆞ니라<언해 12전>

<7> 漢音齒聲,有齒頭正齒之別 (字音의 정음 발음 표시 생략) <언해 14후> (중국어음의 이소리는 치두음과 정치음의 구별이 있다.)// 中듕國귁소리옛니쏘리ᄂᆞᆫ齒칭頭뚛와正졍齒칭왜ᄀᆞᆯ히요미잇ᄂᆞ니<언해 14후>

---

9) 姜信沆(1990) 13면에서 인용.

<8> 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 (사람의 음성은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다) <제자해 5전>

<9> 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제자해 5후>

<10>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 (어금니 소리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이다.) <제자해 5후>

<11> ㅋ,比ㄱ,聲出稍厲,故加畫,... (ㅋ은 ㄱ에 비하여 소리가 약간 거칠기 때문에 획을 더했고,...) <제자해 5후>

<12> 喉邃而潤, 水也. 聲虛而通, ... 於音爲羽. (목구멍은 깊고 젖어 있어 水이고, 소리는 비고 통한다...5음으로는 '우'이다.) <제자해 6전>

<13> 又以聲音淸濁而言之.ㄱㄷㅂㅈㅅㆆ,爲全淸...ㄴㅁㅇ,其聲最不厲,故次序雖在於後... (또 성음의 청탁으로 말한다. ㄱㄷㅂㅈㅅㆆ은 전청이 되고...ㄴㅁㅇ은 그 소리가 가장 거칠지 않기 때문에 차례로는 비록 뒤에 있으나...) <제자해 7전-후>

<14> 全淸竝書卽爲全濁,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也. (전청을 나란히 쓰면 곧 전탁이되는 것은, 전청의 소리가 엉기면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제자해 8전-후>

<15> 唯牙之ㆁ, 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 (다만 아음의 ㆁ은 비록 혓뿌리가 목구멍을 닫지만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와서 그 소리가 ㅇ과 서로 비슷하다.) <제자해 7후>

<16> 唯喉音次淸爲全濁者, 盖以ㆆ聲深不爲之凝. (오직 후음은 차청이 전탁이 되는 것은 대개 ㆆ은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해 8후>

<17> 此下八聲, 一闔一闢. (이하 8성은 하나가 닫힘이면 하나가 열림이다.) <제자해 9전>

<18> ·之貫於八聲者, (·가 여덟 소리를 꿴 것은...) <제자해 10전>

<19> 初終合而成音 (초·종성이 합해서 음[절]을 이룬다.) <제자해 12후>

<20> 且就三聲究原理 (또한 세 소리[天地人]를 취하여 원리를 살피면) <제자해 17전>

<21> 字音於此止定焉 (자음은 여기서 종결되어 정해지는 것이네) <제자해 18전>

<22> 且ㅇ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 (그리고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종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중성이 음을 이룰 수 있다.) <종성해 22전-후>

<23>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如孔子ㅣ魯ㅅ:사ᄅᆞᆷ之類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쓸 경우, 한자음에 따라서 한글의 중성[모음]이나 종성[자음]을 보충하는 때가 있으니, '孔子ㅣ魯ㅅ:사ᄅᆞᆷ'과 같은 류이다.) <합자해 25후>

<24> 諺語平上去入,如활爲弓而其聲平,:돌爲石而其聲上,(국어의 平上去入은 '활'은 弓으로 그 聲이 平이고, ':돌'은 石으로 그 聲이 上인 것과 같다.)<합자해 25후>

<25> 半舌有輕重二音.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반설음에는 '경'과 '중' 2음이이 있는데, 운서의 자모에는 오직 하나이고, 또한 국어에서도 비록 경중을 구별하지 않으나 모두 音을 이룰 수 있다.) <합자해 26후>

<26> 音因左點四聲分 ([字]音에 따라서 왼쪽의 점으로 4聲을 구분한다.) <합자해 28전>

<27> 二字合用者, ㅗ與ㅏ同出於·,故合而爲ㅘ (두 글자를 합하여 쓰는 것에 대하여: 'ㅗ'와 'ㅏ'는 동일하게 '·'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ㅘ'가 된다.) <중성해 20전>

<28> 正音制字尙其象 (정음의 글자를 제작하는데 그 모양을 존중하였다.) <제자해 13후>

<29> 正音之字只二十八 (정음의 글자는 오직 28자이다.) <제자해 18후>

<30>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정인지서문 30후>

<31>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전하께서 정음28자를 창제하셨다) <정인지서문 31후>

<32> 君快虯業其聲牙 舌聲斗呑及覃那 (ㄱㅋㄲㆁ은 그 소리가 '어금니'이고 혀소리는 ㄷㅌ 및 ㄸㄴ이다) <초성해 19전>

<33> ·一起ㅣ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ㅣ에서 일어나는 · ㅡ 소리는 국어에 소용없다. 아이들 말이나 변경 시골의 말에 간혹 존재한다...)<합자해 26후>

3. 聲 -- 소리, 음향(noise, sound), 음성(sound, phone)

正音 창제자들은 國語의 '聲音'('음운')을 初聲·中聲·終聲으로 분석·분류하였다. 현대국어로 '처음 나는 소리', '중간에 나는 소리', '끝에 나는 소리'이며, 여기서 '소리'는 '일반적인 소리'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初聲解」 머리에 밝힌 바와 같이,[10] '初聲'은 중국 聲韻學의 '字母' 혹은 '聲母'이다. 그 때문에 聲母의 牙音·舌音·脣音·齒音·喉音·半舌音·半齒音 등 '七音' 분류체계를 초성의 분류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정음 창제자들은 새로운 용어인 初聲·中聲·終聲을 정할 때에 '聲'자를 '七音'의 '音'과 구별하여 썼을 것이 분명하다. 복수의 '語音'(음운)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聲'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 <30> 有天地自然之聲(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에서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를 '聲'으로 지칭하였다.

<3> "ㄱ.牙音.如君字初發聲"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語音ㄱ'을 "'君'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는 설명에서 역시 '聲'이 일반적 개념의 '소리'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4>·<5>는 <3>과 동일한 구문(構文)이고, <11> 이하 여러 용례에서 특정 '音'을 설명하는 "그 소리는..."의 표현에 '聲'이 쓰였다.

<언해본>의 예문인 <7> "漢音齒聲..." 역시 "중국 語音('음운')의 잇(齒)소리에는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언해문은 '漢音'을 '漢語 聲'(중국어의 소리), '齒聲'을 '齒音'과 같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아래 참고.)

中聲의 분류어. 初聲의 語音들은 '牙音'·'舌音' 등으로 호칭하였는데, 기이하게도, 中聲은 개별적으로 '-音'이나 '-聲'으로 지칭한 예는 <33>의 'ㅣ聲' 하나 뿐이다. 이것도 중성의 분류어로 쓴 것이 아니라 '起語 ㅣ'의 자질을 설명한 것을 '聲'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初出字(ㅏㅓㅗㅜ)와 再出字(ㅑㅕㅛㅠ)를 '八聲', 再出만 '四聲', 天地人 3字를 '三聲'으로 호칭한 예가 나타나는데 (<17> <18> <20>), 모두 복수의 中聲字/音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소리'와 '쏘리'. 위 인용문 <3>·<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언해본>에 初聲 7音 중 牙·舌·脣·齒·半舌·半齒 6音의 설명에서 '音'을 '쏘리', '聲'을 '소리'로 썼다. ':엄쏘·리'(牙音), '·혀쏘·리'(舌音), '입시·울쏘·리'(脣音), '·니쏘·리'(齒音), '반·혀쏘·리'(半舌音), '·반·니쏘·리'(半齒音)이다. 일견 '聲'을 '소리', '音'을 '쏘리'로 구분하여 쓴 듯이 보인다. 그러나 喉音 3字(ㆆㅎㅇ)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운환경에 의한 변이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즉, 첫 6음의 명칭 '엄'·'혀'·'입시울'·'니'·'반혀'·'반니'는 末音이 '-ㅁ·-ㄹ·-

10) 正音初聲,卽韻書之字母也.聲音由此而生,故曰母 <초성해 18후>

모음'으로, 현대국어에서 통칭 '사이시옷'이 삽입되지 않으면 후행하는 /ㅅ-/의 경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음운환경이다. 그와 반면에 '목-'(喉)은 말음이 '-ㄱ'으로 후행하는 파열음의 경음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7> '漢音齒聲'의 언해 "中듕國귁소리옛니쏘리ᄂᆞᆫ"에서도 마찬가지로 '-ㄱ'뒤에서는 '소리', 모음 뒤에서는 '쏘리'이다. 그리하여 '쏘리'가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사이시옷'에 의한 후행 /ㅅ/의 경음화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11]

<7> '漢音齒聲'에서 '齒音'이 아닌 '齒聲'인 것은 "중국어 발음(음운체계)에서 잇소리"라는 의미로 쓴 듯하다. 혹은 선행어 '漢音'의 '音'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듯도 하다.

<24>에서와 같이 '聲'은 중국 성운학에서 도입한 平上去入 四聲(聲調의 분류)의 용어로 물론 사용되었다.

4. 音 -- 음소/음운(phoneme), 발음(pronunciation)

이상 '聲'을 대개 '(일반적인) 소리'의 의미로 설명하였다. 그에 비하여 '音'은 '한정된 소리' 혹은 '체계가 있는 소리'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언어 單位의 음성', 즉, '음소'·'음절'·'(단어의) 발음' 등을 '音'으로 표현하였다. 위 <3> 등 解例에 다수 등장하는 初聲의 분류음인 '牙音'·'舌音'·'脣音' 등에서 '音'은 현대어 '子音'·'母音'에서 '音'과 같이 '언어의 최소 단위 음성' 즉 '음소'의 의미이다. <2> "國之語音"의 '音'도 '국어의 음성'으로 현대어 '국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 "訓民正音"의 '音'도 역시 '언어의 음성'을 의미하지만, '正音字'('정음을 표시하는 글자')의 단축 표현, 아니면 '音'이, 해례의 다른 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성과 문자의 혼용'의 일종으로, '문자'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해야 한다. '正音'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로 설명한다.

위 <19> "初終合而成音"(초성과 종성이 합하여 音을 이룬다)과 <22> "...而中聲可得成音也" (중성이 音을 이룰 수 있다)에서 '音'은 분명히 '음절음'으로, 해례 편찬자들이 이해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다. 아래 설명한다. <21>과 <23>에서 '字音'은 현대어에서와 같은 '글자의 표시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역시 '음절'의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6>의 '音'은 '字音'의 단축형으로 보인다.

<8>과 <13>의 '聲音'은 현대어의 '(언어)음성'과 대응하지만 '(자연적) 소리의 (체계적) 음운'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音'과 '字'의 혼용.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말'(음성 언어)과 '글'(문자, 문어)은 흔히 혼용되었다.[12] 서양에서는 19세기말까지 '單音'(단음)을 낱글자(單字)를 의미하는 'letter'로 표현하였다.[13] 중국과 우리나라의 성운학서에는 흔히 '음절'을 문자를 의미

---

11) <언해>의 고유어 표기에 나타나는 'ㅅ-'은 대개 현대국어 '경음'과 대응한다. 예. 製·제·ᄂᆞᆫ글지슬·씨·오<1전2 등>, 語·엉는:말·ᄊᆞ미·라<1전4>, 골·바·쓰·면<4전2 등>. 그런데 <언해>에는 'ㅱ'도 나타난다. 예. ·겨체·쁘는字ᄍᆞᆼ<1전7>, 用·은·뽈·씨·라<3전6>, 날·로·ᄠᅮ·메(3후1). 한자음 표기(통칭 '東國正韻식 한자음 표기')에 나타나는 'ㅅ'은 고유어와 같은 경음 표시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예. 二·싱十·씝八·밣字·ᄍᆞᆼ<2후7>, ㄷ·ᄂᆞᆫ舌·썷音흠·이·니<4후5>, ㅂ·ᄂᆞᆫ脣쑨音흠 ·이·니<5후5>.

12)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국어'와 '한글'을 혼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컴퓨터의 문자 폰트는 '한글 폰트', '로마자 폰트', '일본문자 폰트'로 써야 할 것을, 대개 '한국어 폰트', '영어 폰트', '일본어 폰트'로 통용되고 있다. 신문의 칼럼 등의 글에서 '한문'(文語)과 '한자'(문자), '한글'과 '고유어'의 혼동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우리 말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다"는 문장을 어느 이공계 대학교수의 글에서 본 적이 있다.

13) 'sentence'의 어원은 라틴어의 sententia ('감정, 의견')였으나 文語의 '문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하는 '字'로 표현하였다. 해례에서도 '字'가 '음절'을 의미하는 예들이 보이지만, '음운'의 의미인 '音'과 같이 사용되어, '字音'('글자의 발음')을 '字'('글자')로 생략하거나, '...音字'('...발음의 글자')를 '音'으로만 표현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음성'과 '문자' 호칭어가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위 <3> "ㄱ.牙音.如君字初發聲"(ㄱ. 어금니소리. '君'자의 처음에 나는 소리와 같다.)에서 'ㄱ'은 문자이고, '牙音'은 음성의 종류이다. 따라서 'ㄱ' 자체가 牙音이 될 수 없다. "君字의 처음 나는 소리"도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쓴다면, "ㄱ音.牙音.如君字音初發聲' ('ㄱ'자의 음. 어금니소리. '君'자의 자음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이다. 그러나 해례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原義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자'와 '음성'의 호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도 올바른 의미를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예들은 東西古今의 서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해례에서 예를 본다.

<9> "正音二十八字"에서는 '(正)音'은 '(28)字'가 될 수 없다. '(正)音字'로 이해해야한다. <6> "ㅇ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ㅇ'을 순음아래 이어서 쓴 즉 순경음이 된다)에서도 '脣音'(음성)은 '脣音字'(문자)로 이해해야 한다.

<27> "二字合用者, ㅗ與ㅏ同出於ㆍ,故合而爲ㅘ (두 글자를 합하여 쓰는 것에 대하여: 'ㅗ'와 'ㅏ'는 동일하게 'ㆍ'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ㅘ'가 된다)의 경우 '二字'와 'ㅗ'ㆍ'ㅏ'를 글자로 볼 수도 있고 음성으로 볼 수도 있다. 글자의 경우 해례의 설명과 자형 자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ㆍ+ ㅡ → ㅗ, ㆍ+ ㅣ→ ㅏ, ㅗ+ ㅏ→ ㅘ 이다. 음성으로 본다면 [ㅗ]음은 [ㆍ]음의 조음자(調音者) '혀'를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입술만 동그랗게 만들어 내는 소리이고, [ㅏ]음 역시 [ㆍ]음의 조음자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입술만 크게 벌리는 음(口張)이기 때문에, 둘 다 '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고, 음성 [ㅘ]는 [ㅗ+ ㅏ]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5. 正音 -- '正立한 音聲/音素'(phonemes proper), 音素目錄(phoneme inventory)

위 인용문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訓民正音'은 <언해본>에서 "百·빅姓·셩ᄆᆞᄅᆞ·치시논正·졍ᄒᆞᆫ소리"로 해석하였다. 즉, '正音'을 '正한 소리'로 설명하였다. 御製序 원문에서 고유명사 '中國'과 '爲'자 이외의 모든 한자에 대응하는 고유어 단어나 설명을 붙였다. 심지어 '二十八'이나 '人'과 같은 초보 한자들까지도 '·스·믈여·들비라', ':사·ᄅᆞ미·라'<언해 3전>로 설명하였는데 유독 '正'자는 국어한자음 '·졍'으로만 대응시켰다. '正'이 시현하는 의미에 마땅히 대응하는 고유어가 부재하였던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하간에, 현대 학자들은 '正'의 기본 의미 '바르다'(訓 '바를 정')에 따라 '正音'을 '바른 소리'로 이해하여, '訓民正音'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 해석하였고, 그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바른 소리'의 正體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었다.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이 서문을 기억하는 일반인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의 의미를 모호하게 이해하여 왔을 뿐이다. 『訓民正音』을 연구한 학자들은 御製序와 解例 및 鄭麟趾 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 학자들이 '正音'을 '올바른 漢字音'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국어 한자음을 중국의 표준 한자음에 맞추어 '바르게' 고치는데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사용되고, 한자어 '文章'은 본래 문어의 문장을 의미했으나, 현대언어학에서는 '口語의 문장'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쓴다.

으나 다수 학자들이 공감하는 설명은 아니었다.[14]

위 인용문 <9> 正音二十八字 (정음 28자), <28> 正音制字尙其象 (정음의 글자를 제작하는데 그 모양을 존중하였다), <29> 正音之字只二十八 (정음의 글자는 오직 28자이다), <30>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전하께서 정음28자를 창제하셨다) 등 『訓民正音』 자체에서 '正音'은 분명히 '문자'를 지칭한다. '正音'을 '음성'이나 어떤 다른 대상으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문자는 서문의 초두에 쓴 '國之語音', 즉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였다. 『訓民正音』 자체 내에서는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례에서 '音'은 '언어의 음성' 즉 '음소/음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正音'의 '音'도 역시 '언어의 음성/음소'의 의미이며, 이것을 '문자'로 해석하려면, '正音字'에서 '字'가 생략되었거나, '音'과 '字'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혼용한 예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正'이다. 지금까지 '正'을 '바르다'로 해석하면서도 그 의미는 주로 '옳다', 혹은 '맞다'로만 이해하고, 정작 '바르다'의 기본 의미인 '가지런하다', '모범이 되다', '기준이 되다', '표준이 되다' 등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正音'을 '옳은 소리'로 이해할 때, 『訓民正音』에서 설명하는 '옳은 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혼란해진 국어 한자음을 중국의 '옳은 漢字音'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正音을 창제하였다는 '그럴듯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던 듯하다.[15]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례에 체계적으로 설명한 正音 初聲 기본 17字와 中聲 11자는 글자이자 동시에, **세종대왕과 정음 창제자들이 관찰·분석하여 파악한 당시 국어에서 辨別된 자음과 모음 음소들이다.[16] 정음 28자가 대표하는 국어의 기본음 28음은 정음 창제자들이 최초로 劃定한 것이다**.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다.

字典에 수록된 '正'의 여러 가지 의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是'(옳다, 바르다)와 더불어 '不傾斜'(기울지 않다), '定'(정하다)·'決'(결정하다) 등도 보인다.[17] **'正音'의 '正'을 '옳은'이 아닌 '표준으로 定한'의 의미로 이해해야 비로소 '正音'의 의미가 선명해 진다.** 즉, '訓民正音'의 '正音'은 창제자들이 관찰·분석하여 "指定한 국어의 표준 음운 혹은 그것을 표시하는 문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正音' 말고 "관찰하여 선정한 국어의 기본 음성"을 지칭하는 어떤 다른 용어를 상상하기 어렵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고가 되었고 '正音' 명칭의 모형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洪武正韻』의 '正韻'도 '기준으로 정한 한자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과거에도 중국어 방언 간의 차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격하였다. 따라서 같은 글자의 字音이 방언마다

---

14) 姜信沆(2003)에는 조선조와 중국의 문헌에 나타나는 여러 '正音'의 예들을 수렴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訓民正音'의 '正音'은 '소리'와 '글자'를 뜻하는 새 문자의 이름이지만, "세종이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한 '正音'이 무엇이었는지 文獻上 明示된 곳이 없으므로 그 '正音'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논문 24면)

15)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훈민정음 창제 전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韻書 편찬 사업을 지적한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漢字-한문을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인구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그들의 漢字音 학습을 위하여 새 문자를 창제하였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그보다도, 御製序에 분명히 밝힌 목적인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일상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문자의 창제"를 부정하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서 수긍할 수 없는 가설이다.

16) 正音(정음) 28종이 당시 국어의 음소체계를 정확히 반영하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적어도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국어의 기본 음성'(현대적 표현으로 '음소')으로 파악한 사실은 확실하다.

17) 참고. 『中文大辭典』 五, 596면: 正 ① 是也.守一以止也 [說文] 正,是也,从一,一以止, ㉓ 定也, ㉔ 決也 . 같은 사전 606면에는 '正音'이 『南史』列傳에서 "矯正其讀音之誤也"(독음의 잘못을 고침)의 의미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훈민정음의 '정음' 의미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달랐을 것이다. 또한 와전에 의한 차이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中央集權的 통치 체제였던 중국에서는 통치를 위한 표준 한자음의 선정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곧 韻書 편찬 사업으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음 창제자들은 국어의 음소목록, 즉 '正音'을 파악하고, 개별 음소를 표시하는 音素文字(alphabet)체계를 제작하여 그 이름 역시 '正音'이라 하였다. 중국 明太祖의 御命으로 편찬된 『洪武正韻』의 '正韻'은 당시(14세기말) 중국에서 '표준으로 선택한 한자음'을 의미한다.

6. 字, 成音, 字韻 --- '발음 가능 단위'(pronounceable unit), 음절(syllable)

'발음 가능한 언어 단위'에 대한 언중 의식은 언어와 표기문자와 전통적 관념에 따라 다르다. 영어・러시아어 등 다수 유럽어의 언중들은 자음이든 모음이든 모든 음성의 독자적 발음이 가능하다는 관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 프랑스어 언중들에게는 다수 자음들이 모음과 짝을 이루어야 발음이 가능하다. 'Paris'의 끝 자음 '-s'는 짝을 이룰 모음이 없어서 발음되지 않아 [pari]이다. 현대 국어의 언중들은 대개 모음은 단독 발음이 가능하고, 자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음'의 新造 대치 고유어 '홀소리'('홀로 나는 소리'의 뜻)와 '자음'의 '닿소리'('다른 소리와 닿아야 나는 소리'의 뜻)에 그러한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유형적분류(typological classification)에서 중국어는 고립어(isolating language)로 분류한다. 중국어에서는 문법적 변화가 굴절(inflection)이나 교착(agglutination)이[18] 아니라 독립적인, 혹은 孤立的 (isolating)인, 언어 단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언어 단위는 單音節이며 漢字 한 자로 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한자가 표시하는 音, '字音'(자음)은 '음성단위'이자 '의미단위'이다. 즉 형태소(morpheme)이다. 그러한 중국어의 특성 때문에 음절-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가 중국어의 표기에 큰 불편 없이 2천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의 언중들에게 '발음 가능 최소 단위'는 자연히 '字音', 즉 '음절'이며, 역사적으로 중국의 음성 연구자들이 관찰하고 분석한 대상도 이 단위였다.

정음 창제자들은 중국어와 국어의 상이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어의 음성을 분석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국어에서도 중국어의 字音과 같이 "발음 가능한 단위"가 음성 분석의 대상이지만, 중국어의 '字音'과 달리 의미를 시현하지 않는 단위들이기 때문에 명칭에 고심한 듯,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1) 凡字必合而成音(무릇 글자는 합해서 音을 이룬다) <예의편 4전>.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합자해 26후> (또한 국어에서도 경중을 나누지 아니하나, 둘 다 소리를 이룰 수 있다.) 이 두 인용문에서 '成音'(音을 이루다)은 "발음 가능한 음성 단위를 이루다"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초・중・종성이 합하여 이루어진 字를 말하자면,...> <제자

18) '굴절'은 라틴어 등 유럽제어에서 볼수 있는 "어간의 변화에 의한 문법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take : took, get : got 과 같이 어간의 모음을 바꾸어 과거형을 표현하는 것이다. 교착은 "접사(接辭)의 첨가에 의한 변화"이다. 국어가 교착어이다. '가-시-었-다'와 같이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의미를 추가하거나 변화한다.

해 12전> 여기서 '字'를 '음절'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3)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중성은 자운의 가운데 있고, 초·종성과 합하여 소리를 이룬다> <중성해,19후>;

(4) 終聲者,承初中而成字韻(종성은 초·중성을 이어서 자운을 이룬다> <종성해,21후>.

위 (3)과 (4)에서 '字韻'이 역시 '발음 가능 단위'를 의미한다. (3)에서는 '발음 가능 단위'의 일부인 '韻'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4)에서는 '발음 가능 단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다. 필시 중국어와 구별하기 위하여 '字音'이라는 표현을 피한 듯하다.

이상의 인용 예들에서 정음 창제자들이, 비록 표현은 다르게 했어도, "발음 가능 단위"와 그 단위를 구성하는 "단독 발음 불가능 성분들(초·중·종성)"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발음 가능' 여부는 해례에 나타나는 정음 창제자들의 판단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국어 언중들은 자음은 단독 발음이 불가능하지만 모음은 가능하다고 의식한다. 현대어로 '발음 가능 단위'는 '음절', 음절의 구성 성분으로 '단독 발음 불가능 단위'는 '음성'(phone)에 대응한다. 즉, **정음 창제자들은 '음절'과 '음절의 구성 성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음절의 구성성분 초·중·종성은 '단독 발음이 불가능한 단위'였다.**

7. 初·中·終聲의 분석 -- 分節音(segment, segmental sounds)의 분석, 子音(consonant)과 母音(vowel)의 분류, 音素目錄(the inventory of phonemes) 正立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성운학에서는 字音을 聲母와 韻母로[19] 분석하였다. 정음 창제자들은 국어의 '字(音)'(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분석하고 초성과 종성을 같은 종류의 음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초성의 기본 17음, 중성의 기본 11음을 '正音'으로 정립하고 각 音을 표시하는 28字를 제작하였다. 이 사실을 현대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① '음절'을 3종 분절음/음소, **語頭音(onset)·語中音(nucleus)·語末音(coda)**으로 분석,
② 어두음과 어말음을 '자음', 어중음을 '모음'으로 분류,
③ 자음음소로 17음, 모음음소로 11음, 도합 28음의 음소체계 정립,
④ 각 음소를 표시하는 글자 28자 제작.

1) 분절음, 음소목록

20세기 초 이래의 현대 기술언어학에서 확고히 정착된 이론 중의 하나는 "어느 언어의 음성이든지 한정된 수효의 **'분절음', 즉 '음소'**로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절음들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다. 미국 UCLA 대학교의 음소목록 데이타베이스에[20] 등재된 317개 언어의 분절음 조사 결과에 의하면, 1개 언어에서 구별되는 분절음의 종류는 최소 11종에

19) 중국의 성운학에서도 간혹 운모를 최대 4개 요소, 운두(韻頭)+운복(韻腹)+운미(韻尾)+4성(聲)(반모음+모음+어말자음+성조)으로 분석하였지만, 이론적 설명에만 그쳤을 뿐, 실용적 가치는 없었던 듯하다.

20) 약칭 UPSID. 원명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

서 최대 141종이며, 조사한 언어들의 70퍼센트에서는 20 내지 37종의 분절음이 구별된다고 한다. 자음은 최소 6종에서 최다 95종으로 평균 22.8종이고, 모음은 최소 3종에서 최다 46종으로 평균 8.7종이다.[21]

훈민정음의 자음(초성) 17음은 평균보다 적고, 모음(중성) 11음에는 현대 서양언어학적 해석으로는 /y+모음/인 /ㅛ ㅑ ㅠ ㅕ/ 4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면 7 모음으로 역시 평균보다 적다. (참고. 현대국어 중부방언 60대 이상의 국어에 존재하는 음소는, 일반적으로, 자음 19종, 모음 8종으로 인정한다.)

2) '정음' 설정과 현대 언어학의 '음소' 개념

'음소'는 "한 언어에서 구별되는 분절음"이다. 음소의 개념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유럽의 학자들이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어느 언어의 '음성'이라 하면 현대 언어학의 '음소'와 거의 같은 뜻이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교재에 서술된 '발음'은 그 언어 '음소'의 발음이다.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심지어 한 개인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성하는 다양한 '음성'의[22] 발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정음 창제자들이 정립한 28音이 15세기 국어의 음소체계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제쳐 놓고,[23] 적어도 정음 창제자들이 초·중성 28音을 국어의 '기본음'으로 인정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정음 창제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正音'(=음소)을 선정하였는지 설명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그 결과 및 분류체계와 산발적으로 보이는 단편 설명에 의하여 정음 창제자들은 20세기 언어학의 산물인 '음소'의 기본 개념인 "특정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구별되는 최소 언어 단위"와 그 요건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1) 국어 음소목록(the inventory of the Korean phonemes). 정음 창제자들은 초성의 체계를 중국 운학의 7音4聲 체계를 그대로 따랐지만, 중국어의 36聲母 혹은 31성모체계에서 국어에 부재하는 舌頭音:舌上音, 脣重音:脣輕音, 齒頭音:正齒音의 구분을 없애고, 국어에 존재하는 17音만 선택하였다. 즉, 정음 창제자들은 국어의 어두에서 변별되는 자음과 변별되지 않는 자음들을 분명히 파악하였다. 다만 /ㆆ/은 해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ㅇ/과 변별되지 않았지만 4성7음의 패러다임 때문에 制字한 듯하다. 各自並書/全濁音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한다. 참고. <합자해 26후> 初聲之ㆆ與ㅇ相似,於諺可以通用也.(초성의 'ㆆ'과 'ㅇ'은 서로 비슷하여, 국어에서 통용이 가능하다.)

(2) 個人言語的(idiolectal) 및 方言的(dilectal) 변별음의 배제. 어떤 언어의 음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언어 집단에서만 구별되고 대다수 言衆이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辨別音(distinctive sounds)은 선택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정음 창제자들이 正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21) Crystal(1997) p.167 참고.

22) 예를 들면, '아버지'·'어머니'를 서울·중부지방의 한 화자가 실제 생활에서 [아부지]~[아브지], [어무니]~[어므니]~[엄니] 등으로 발음함을 관찰할 수 있다.

23) 15세기 국어의 음운체계에 대해서는 1940년대 이래 여러 학자들이 연구 발표하여 왔다. 28음에 소속된 /ㆆ/, 全濁音 /ㄲ ㄸ ㅃ ㅆ ㅉ ㆅ/, 脣輕音 /ㅱ/, 合用竝書로 표시된 /ㅳ ㅶ ㅸ ㅹ/ 등의 음소설정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었다.

<合字解　26후-27전>에 "・一起ㅣ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ㅣ]에서 일어나는 [ㅣ+・] [ㅣ+ ㅡ] 소리는 국어에서 쓰이지 않으나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 말에는 간혹 있다.)라는 설명이 보인다. 즉 어린이(특정 집단)의 말이나 방언에만 존재하는 음성은 正音으로 채택하지는 않으나 竝書로 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 위치적 변이음(positional variation). ① 초성과 종성을 동류(同類)로 파악한 것은 **위치적 변이음** 혹은 **이음**(異音 allophone)의 존재를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음절 [국]의 어두음 [ㄱ-]은 '폐쇄-파열'되고, 어말음 [-ㄱ]은 '폐쇄'만 되어 음성학적으로 상이한데, 동일한 '正音'으로 인식한 것이다. 현대언어학에서 정의한 '음소'의 중심 개념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② [r]과 [l]. <合字解 26후> 半舌有輕重二音.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반설음에는 輕과 重 2종이 있으나, 운서 자모에는 오직 하나이다. 또한 비록 국어에서도 輕과 重을 구분하지 않지만 둘 다 음을 이룰 수 있다.) 이 인용문에서 '半舌輕音'은 분명히 [r]이고 '半舌重音'은 [l]이다. 이 두 가지 반설음을 "국어에서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어의 '正音'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成音'(=발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어에서도 [l]과 [r]이 구별 시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적 변화'를 표현한 것이 확실하다. 즉, /ㄹ/이 어두(非고유어)나 모음 사이에서는 [r]로 실현되고, 어말이나 폐쇄 자음 앞에서는 [l]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예. '가라'[kaɾa], '갈'[kal], '갈고'[kalgo]. 역시 반설경음을 순경음의 예에 따라 'ㅇ-連書'로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24]

(4) 음운변화(sound change). 정음 창제자들은 음운변화 현상도 관찰하였다. <종성해 22후>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如牙之ㆁ與ㄱ爲對,而ㆁ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ㆁ而緩. 舌之ㄴ ㄷ, 脣之ㅁㅂ,齒之ㅿㅅ, 喉之ㅇㆆ, 其緩急相對,亦猶是也. (5음의 느리고 빠름으로 또한 각[音이] 對를 이룬다. 牙音 ㆁ이 ㄱ과 대를 이루어 ㅇ을 빨리 발음하면 ㄱ이 되어 급하고, ㄱ을 느리게 내면 ㅇ이 되어 느리며, 설음의 ㄴ ㄷ, 순음의 ㅁ ㅂ, 치음의 ㅿ ㅅ, 후음의 ㅇ ㆆ 도 느리고 빠름의 상대가 되어 역시 이와 같다.

이 인용문에서 ㄱ-ㆁ, ㄴ-ㄷ, ㅁ-ㅂ, ㅿ-ㅅ, ㅇ-ㆆ 이 각각 對가 되어 緩急에 따라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인용문의 출처가 '종성해'이기 때문에, 분명히 語末 子音과 후행하는 음성 간에 발생하는 '음운변화', 또는 '同化' (assimilation)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이 [궁민], '굳는다'가 [군는다], '갑년'(甲年)이 [감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ㄱ>ㅇ, ㄷ>ㄴ, ㅂ>ㅁ 의 변화(鼻音化)는 현대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반대 ㅇ>ㄱ, ㄴ>ㄷ, ㅁ>ㅂ 과 치음 ㅅ-ㅿ, 후음 ㆁ-ㆆ 간의 변화는 예를 찾기 어렵다. 여하튼 간에 해례의 집필자들이 현대언어학의 용어로 '음운변화' 혹은 '음운동화' 현상을 관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最少辨別雙(minimal pair). 해례에는 현대 構造主義 언어학자들이 '음소'를 확인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 언급하는 '최소변별쌍'의 예들도 보인다. <합자해 25전> 各自竝書如諺語·혀

24) 국어, 중국어, 일본어에는 /l/과 /r/의 구별이 없지만, 몽고어, 만주어 등 북방민족의 제언어에는 구분이 있어서 정음 창제자들은 물론, 당시에 그 언어를 습득하던 역관들이 두 음성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爲舌而・혀爲引괴·여爲我愛人괴·ᅇᅧ爲人愛我, 소·다爲覆物쏘·다爲射之之類 (각자병서는 '혀'가 국어의 '舌', 'ᅘᅧ'가 '引'(끌다), '괴여'가 '내가 남을 사랑하다', '괴ᅇᅧ'가 '남이 나를 사랑하다', '소다'가 '물건을 덮다', '쏘다'가 '(화살을) 쏘다'의 의미가 되는 것과 같다.)

'ㅇ'의 각자병서 'ᅇ'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설명한다.

(6) 辨別資質(distinctive feature)과 對立(contrast, opposition). 20세기 언어학에서 "음소들은 변별자질에 의하여 대립한다"고 설명한다. 7音4聲의 초성(=자음)분류체계는 그 자체가 , 비록 중국 성운학에서 도입한 것이지만, 음성 간의 변별자질과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7音은 조음위치(place of articulation)에 의한 분류이고, 4聲은 조음방식(manner of articulation)에 의한 분류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래 절에서 설명한다.

(7) 音素文字(alphabet, phonemic writing). 아시아의 표음문자(表音文字)들 중에서 낱자가 표시하는 음성이 단일 음소인 문자는 훈민정음 밖에 없다.[25] 인도와 주변국 및 동남아 제국에서 사용해 온 수많은 인도계 문자들—티베트문자와 팍바(八思巴)문자도 포함된다--의 자음자는 기본적으로 '자음+[a]' 혹은 '자음+[o]' 음절을 표시한다. 모음은 독립된 기호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대개 자음자에 부가기호로 표시한다. 일본 문자의 기본 표기음도 '자음+[a]'이다. 위구르(Uighur)계 문자인 위구르문자, 몽고문자(Mongol bicig), 만주문자에서는 표기된 형식에서는 1자를 1음으로 대응시킬 수 있지만, 1자가 인접 자와 결합하여 상이한 음성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몽고문자에서 어중(語中)의 [a]와 [e], [o]와 [u], [d]와 [t] 등이 각각 동일한 글자로 표시된다.

여러 문자들에서 자음자(子音字) 기본 표시음에 모음이 포함된 원인은, 위에서 설명한, '발음 가능한 언어 단위'에 대한 인식과 관계있는 듯하다. 즉, 단자음(單子音)은 발음될 수 없고, '발음될 수 없는 언어단위'를 표시하는 글자는 있을 수 없다는 관념이 문자를 만들 때 작용하였을 듯하다.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개별적으로는 발음할 수 없는 언어 단위"를 표시하는 기호들을 제작한 것이다.**

이상 몇 가지 사실로 정음 창제자들이 20세기 현대언어학에서 정의한 '음소'의 개념에 부합하는 음성 단위를 확실히 認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四聲七音 -- 변별자질(辨別資質 distinctive feature), 대립(對立 contrast, opposition), 상관속(相關束 correlation bundle)

20세기 초반에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자들은 '음소'를 정의하고, 음소 간의 체계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음소와 음소를 구별시키는 요소를 '**변별자질**', 변별자질에 의하여 구별되는 두 음소는 '**대립**'한다고 하고, 어떤 공통 변별자질을 공유하는 음소들의 집합을 '**상관속**'이라 하였다.

현대 음성학/음운론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여 온 변별자질들은 크게 2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調音位置**(place of articulation)의 다름으로 인하여 구별되는 자질과 다른 하나는

25) 서양 최초의 음소문자는 기원전 10세기 경에 출현한 희랍문자이다.

調音方式(manner of articulation)에 의하여 구별되는 자질이다. 바로 국제음성기호(IPA)의 음성 분류표에서 볼 수 있는 자질들이다. 자음의 분류표에서 횡적 분류인 Bilabial(양순음), Labiodental(순치음), Dental(치음), Alveolar(치조음), Postalveolar(후치조음), Retroflex (권설음), Palatal(구개음), Velar(연구개음), Uvular(구개수음), Paryngeal(인두음), Glottal (성문음) 등은 조음부위에 의한 변별자질들이고, 종적 분류 Plosive(파열음), Nasal(비강음), Trill(전동음), Tap or Flap, Fricative(마찰음), Aproximant(접근음), Lateral approximant (설측근접음) 등은 조음방식에 의한 변별 자질들이다.[26]

중국 성운학에서 도입한 四聲七音의 초성 분류체계는 기본 원리가 현대음성학/음운론의 자음분류체계와 같다. 즉 牙(연구개음)・舌(치조음)・脣(양순음)・齒(치조음)・喉(후두음)・半舌 (치조음)・半齒(치조음), 7音은, 명칭의 字意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조음부위에 의한 구분이다. 단, IPA와 현대언어학서에는 횡적분류의 순서가 구강 앞에서부터 뒤로, 즉 입술-이-잇몸-...의 순서인데, 7음에서는 처음 3음은 뒤에서 앞으로, 즉 연구개-치조-양순, 다음 2음 치-후는 앞에서 뒤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현대언어학에서는 조음기관의 윗 부위, 즉 입천장의 부분 명칭을 취하여 '치조음'-'경구개음'-'연구개음'이며, 調音者. '舌'(혀)은 음성의 분류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全淸・次淸・全濁・不淸不濁, 4聲은, 비록 字意는 '음성의 인상'(?)을 표현하지만, 현대언어학의 '조음방식에 의한 분류'와 같은 성격이다. 아설순 3계열(즉, 파열음)의 '전청'・ '차청'・'불청불탁'이 현대국어나 중국어에서와 같이 **'무기음'(unaspirated)・'유기음'(aspirated)・'비강음'(nasals)**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전탁음'용 各自竝書가 중국어에 존재했다가 소멸되었으나 韻書에는 계속 '4聲'의 하나로 인정되어 온, **'유성음'(voiced)** 표시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론이 있다. 그러나 4聲이 현대언어학의 용어로 '조음방식에 의한 변별자질'임은 분명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례에는 현대국어에 '음소'인 **경음(tensed)**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현대어에 대개 경음으로 대응하는 음성이 대부분 합용병서 ㅱ ㅲ ㅥ 등으로 표시되었다. 정음 창제자들이 국어에 경음계열(상관속)의 존재를 파악하였지만, 4聲7音의 파라다임에 부재하기 때문에 '正音' 초성 17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듯하다. 그와 반면에 '全濁' 계열은 파라다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병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正音'에서 제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音4聲은 각각 상관속을 이룬다. 즉, /ㄱㅋㄲㅇ/은 牙音(연구개파열음) 상관속, /ㄷㅌㄸㄴ/은 舌音(치조파열음)상관속, /ㄱㄷㅂㅈㅅ/은 全淸(무기음)상관속', /ㅋㅌㅍㅊㅎ/은 次淸(유기음)상관속 등이다.

7음4성의 분류체계는 음성 간의 **계열관계**(系列關係 paradigmatic relation) 혹은 **비례적 대립관계**(比例的對立關係 proportional opposition)를 그대로 나타낸다. 즉, /ㄱ:ㅋ:ㄲ:ㅇ/=/ㄷ:ㅌ:ㄸ:ㄴ/=/ㅂ:ㅍ:ㅃ:ㅁ/, /ㄱ:ㄷ:ㅂ/=/ㅋ:ㅌ:ㅍ/=/ㄲ:ㄸ:ㅃ/=/ㅇ:ㄴ:ㅁ/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9. 中聲: 天地人, 初出, 再出 -- 변별자질, 대립, 상관속

26) 국제음성기호는 1930년대부터 여러 번 수정되면서 분류체계와 용어가 바뀌어 왔다. 여기 나열하는 분류어(자질)들은 인터넷에 오른 2005년 판의 자음분류표에 보이는 명칭들이다.

정음 창제자들은 국어의 중성(모음)을 독자적 체계로 분류하고 변별자질들을 설명하였다. 제자해의 설명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根本)		初出		再出 /起於 ㅣ	
		口蹙	口張	口蹙	口張
舌縮-聲深	天 ㆍ	ㅗ	ㅏ	ㅛ	ㅑ
舌小縮-聲不深不淺	地 ㅡ	ㅜ	ㅓ	ㅠ	ㅕ
舌不縮-聲淺	人 ㅣ				

위 표에서 모음간의 계열적 대립관계(paradigmatic opposition)와 음소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설축-성심'·'구축'·'구장'·'起於ㅣ' 4개 변별자질에 의하여 종횡 '상관속'을 형성하며 대립하는 모음체계이다. 설명 없이도 위 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례에서는 '기어 ㅣ'를 '구축'·'구장'에 추가될 수 있는 '자질'로 취급하고, /ㅛ ㅑ ㅠ ㅕ/를 '正音'(음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현대 학자들의 견해로는 '單母音'이 아니기 때문에 '음소'가 아니지만, '기어 ㅣ'가 非分節資質(non-segmental feature)이기 때문에 해례의 취급 방식도 합리성이 있다. '기어 ㅣ'는 음소 /ㅣ/와 공통성이 있지만 /ㅣ/와 같은 분절음은 아니다.

훈민정음의 모음체계에 관한 문제들은 宋基中(1991)과 송기중(2008)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10. 훈민정음 해례의 음성학적 문제

훈민정음 해례에는 이상과 같이 현대음성학의 제이론에 부합하는 음성분류체계와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해례의 내용이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다. 현대음성학적 관점에서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내용도 없지 않다.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한다.

1) 7音4聲 분류체계의 불합리성

중국 성운학에서 도입한 7(5)음4성 분류체계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牙-舌-脣 계열은 '폐쇄-파열음'으로 '全淸-次淸-全濁-不淸不濁'의 '4聲'을 모두 구비한다. 그러나 齒-喉 계열은 '마찰음' 혹은 '파찰음'으로 4聲을 온전히 구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일 4성 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치음에는 불청불탁음(비강음)이 결여되고, 그 중 마찰음인 /s-, ㅅ-/에는 '차청'도 빠지고, 喉音 4성 간의 변별자질은 선행 아-설-순 계열들의 4성 간 변별자질과 다를 수 밖에 없다. 훈민정음 체계로 설명한다면, 'ㄱ:ㅋ:ㄲ:-ㆁ=ㄷ:ㅌ:ㄸ:ㄴ=ㅂ:ㅍ:ㅃ:ㅁ'의 비례적 대립관계가 후음 'ㆆ:ㅎ:ㆅ:ㅇ'까지 연장될 수 없다. 그 때문에 중국의 성운학과 우리의 국어학사에서 후음의 正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이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중국 성운학의 '五音四聲' 분류체계의 元祖로 추정되어 온, 고대인도 음성학자들의 음성 분류체계에서는 '5음'은 '구강내부과정'의 폐쇄-파열음 5개 계열, 연구개음-구개음-권설음-치조음-양순음(예. k-c-ṭ-t-p)이며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순서이다. 성운학의 '4聲'에 해당하는 자질은 다섯 가지로, 무성무기음-유기음-유성음-유성유기음-비강음 (예. k-kh-g-gh-ŋ)이다. 이 체계에서는 마찰음(h s ś ṣ v) 유음(r l) 반모음(j)들을 파열음 5개 계열과 동일한 '조음방식에 의한 자질'의한 자질로 분류하지 않았다.[27]

2) 各自並書의 표시음

해례에는 '全濁音' 표시용으로 각자병서 ㄲ ㄸ ㅃ ㅆ ㅉ ㆅ를 제정하였다. 정음창제자들이 이 글자들을 한자음 '전탁음' 표기용으로 제작하였는데, 창제자들이 이해한 '全濁聲'이 중국어에 존재했다가 오래 전에 소멸된 '유성음'이었는지, 국어의 '硬音'과 같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조음방식에 의한 변별자질들'('무기성'·'유성성'·'경음성'·'비강성' 등)은 聽者의 母語 변별자질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 '유성음'[g d b j]를 국어 母語者들은 무기음 [ㄱ ㄷ ㅂ ㅈ]로 이해하지만, 과거에는 경음 [ㄲ ㄸ ㅃ ㅉ]으로도 이해했고, 국어의 어두 무기음 [ㄱ- ㄷ- ㅂ- ㅈ-]과 유기음 [ㅋ- ㅌ- ㅍ- ㅊ-]을 외국인(미국인, 일본이)들은 무성음 [k t p ch] 한가지로 듣는다. 국어의 경음 [ㄲ ㄸ ㅃ ㅉ]은 외국어에 희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내외 학자들의 설명이 구구하다가 3-40년전부터 '긴장음'이라는 의미의 'tensed'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IPA에는 국어 경음에 대한 표시 기호가 모호하다. 국어 모어자들에게는 어떤 언어(예. 핀란드어, 러시아어)의 무성음 [k t p]가 경음 [ㄲ ㄸ ㅃ]으로 들리고, 또 長子音(geminated) [kk tt pp]들이 국어의 경음 또는 '무기음+경음'으로 들린다. 예. 국가[국까 kuk-kka].

각자병서가 표시하는 음성이 중국 운서의 '전탁음'용이라면 '유성음'표기, 당시 국어에 유성음이 부재하였다면, 조음부위에 긴장을 가하는 '경음', 동일 글자를 겹치기한 것에 의미가 있었다면 '長子音'표기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위에서 보인 인용문 <합자해 25전> "各自竝書如諺語·혀爲舌而·ᅘᅧ爲引괴·여爲我愛人괴·ᅇᅧ爲人愛我, 소·다爲覆物쏘·다爲射之之類"에서 'ㆅ'·'ㆀ'·'ㅆ'은 분명히 유성음은 아닌 듯하고, 경음과 같이 조음부위에 긴장을 가하는 음성을 표시한 듯하다. 그러나 "ㄱ. ... 竝書. 如虯字初發聲"과 같은 예에서는 '虯'의 표음 '뀨'의 'ㄲ'은 경음은 아니다. 각주 11)에 보인 <언해>에 나타나는 'ㅆ'의 경우 고유어 표기에서는 경음인 듯하지만, 한자음 표기에서는 아니다.

3) 합용병서 표시 음성의 문제

합용병서 중에서 경음표기로 확인되는 ㅲ ㅳ ㅶ 등은 경음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왜 그러한 조합으로 경음을 표시했고, 특히 합자해에 보이는 예 'ᄃᆞᆳ빼'의 3자 합용 병서들이 시현한 음가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인도의 데바나가리와 티베트문자에서 복합자음들이 다수 나타나는데, 현실 발음은 대부분 단순 자음이다. 혹시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예로 보인 합용병서의 正體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27) 宋基中(2008) 참고.

4) 八終聲과 ㅅ-終聲의 문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성에는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 8자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즉, 어말 위치에서는 8자음만 대립한다는 뜻이다. 그 원인은 "어말 위치에서 파열음들의 조음방식에 의한 변별, 즉 '무기음-유기음-경음'의 구별이 이루지지 않기 때문"이다. 파열음들은 조음기관의 상부와 하부가 붙었다(폐쇄) 떨어지면서(파열) 발성되는데, 국어의 어말 위치에서 파열음들은 '폐쇄'로 끝나기 때문에 '파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ㅅ/을 비롯한 모든 마찰음들에는 '폐쇄-파열'의 과정이 없다. <종성해 22전>에서 '빗곶'·'옃의갗'의 종성들을 모두 'ㅅ' 한 가지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으니, /ㅅ/·/ㅈ/·/ㅊ/ 간의 대립이 소멸된다는 의미인데, 공통 특질 '폐쇄'만으로 시현되는 파열음의 경우와 다른 어떤 공통 특질로 시현되는지 불분명하다. 근대국어 이후에는 물론 어말의 -ㅅ 과 -ㄷ 이 단일화되었다. 음성학적으로 볼 때, 어말의 /-ㅅ/이 /ㄷ/의 어말 異音, 즉 '폐쇄'만 있고 '파열'이 없는 [-ㄷ]음으로 '음운변화'한 것이다. /ㅅ/은 '폐쇄'의 자질이 없는 마찰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ㅅ'이 대표하여 왔다.

Ⅲ. 결 어

570여년전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국어의, 현대적 개념의, '음소'를 정립하여 '正音'으로 호칭하고 각 음소를 표시하는 글자를 창제하여 역시 '정음'이라 칭하였다. 정음 창제자들이 정음의 선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례에 나타나는 음성의 분류 체계와 일부 음성에 대한 조음상의 특징 설명에서, 현대 음소-음성학자들이 20세기 초반에 일반화한 '음소의 보편적 체계성'과 일치하거나 상당히 근접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백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고에서 설명한 내용들도 대부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지만, 훈민정음 해례의 현대 음소-음성학적 가치를 국어학이나 일반언어학 전공 학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기 위하여 현대 국어학/언어학의 국어 용어와 더불어 영어 용어들을 병기하였다.

참고 논저

姜信沆(1987),『增補版 訓民正音 硏究』, 成均館大學出版部.

姜信沆(2003), 「'正音'에 대하여」, 韓國語硏究 1(한국어연구회), 7-25면.

唐作藩(1991),『音韻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북경(北京).

송기중(1991), 「이론적 측면에서 본 중세국어 /·/ 음, 모음조화, 모음체계」, 國語學(國語學會) 21호 (1991.12.), 79-101면.

송기중(2006), 「국어의 모음체계에 대한 몇 가지 관찰」, 國語學論叢, 李秉根先生退任紀

念, 서울 태학사, 2006. 4. 83-110면.
송기중(2008), 「자음체계의 모형(모델)과 자음 연구」 李崇寧, 現代國語學의 開拓者, 태학사, 2008.11. 787-813면.
宋基中(2009), 「팍바('Phags-pa 八思巴)문자와 訓民正音」: 附 『蒙古字韻』解題, 國語學 54, 國語學會, 17-74면.
李敦柱(1988), 「訓民正音의 中國音韻學的 背景」, 신상순・이돈주・이환묵 편, 『훈민정음의 이해』 전남대어연총서 1. 199-237면.

Allen(1953): W. Sidney Allen, *Phonetics in Ancient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Crystal(1980): David Crystal(ed.), *A First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London.
Crystal(1987): David Crystal(ed.),*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yman(1975): Larry M. Hyman,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1975.
Jones(1950), Daniel Jones, *The Phoneme*, Its Nature and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st ed.).
Robins(1991): R. H. Robins,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Longman Linguistics Library, London & New York.
Song(1998): Ki Joong Song, "The Writing Systems of Northeast Asia and the Origin of the Korean Alphabet, Han'gul,"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11,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50.
Song(2011): Ki Joong Song, "Ancient Indian and Chinese Models of Sound Classification and Their Reflections in the Writing Systems," *Scripta, International Journal of Writing Systems*, The Hunmin jeongeum Society, Seoul. pp.25-43.
Trubetzkoy(1939): N.S. Trubetzkoy, *Principles of Phonology*, translated by Christiane A.M. Baltax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Originally published in German in 1939.)